

詩로 맛깔나게 차린 한상... 읽을수록 진미

‘우리 음식으로 빛은 詩’ 펴낸 김필영 시인

사계절로 나는 64가지 음식
시극 형식 등 다양하게 풀어내
한식의 묘미·우수성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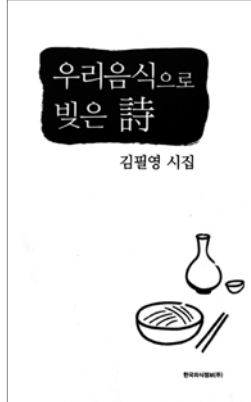
“외식문화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을 소재로 한 시를 쓰게 된 이유이지요. 독자들이 한식의 묘미와 우수성을 깨달았으면 좋네요.”

우리나라 대표 음식 64가지를 소재로 한 시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영광 출신으로 계간 ‘시산맥’ 시인회 회장과 한국현대시인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필영(사진) 시인이 펴낸 ‘우리 음식으로 빛은 詩(한국외식정보)는 시로 한상 가득 차려낸 ‘음식의 향연’이다.

김 시인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테마 시집을 펴냈는데 얼마 전 2쇄를 찍었다”며 “시가 안 읽히는 시대이지만 보편적인 소재여서 신속하게 다가간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 음식을 모티브로 시를 많이 쓴 대표적인 시인은 백석(1912~1996)이다. 193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백석의 시 가운데는 ‘국수’, ‘수박씨, 호박씨’ 등 토속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작품이 적지 않다. 현대시인들 가운데서도 송수권 시인(1940~2016) 등이 질박한 언어로남도 음식을 맛깔스럽게 그렸었다.

김 시인의 이번 작품집에는 계절별로 다양한 음식이 등장한다. ‘봄의 맛’, ‘여름의 맛’, ‘가을의 맛’, ‘겨울의 맛’으



로 구분된 시들은 특유의 식감을 돋는다. 무엇보다 ‘영광굴비’, ‘간장게장’, ‘홍어삼합’, ‘보리밥’, ‘산낙지’ 등 남도 음식을 소재로 한 작품은 하나하나 읽을수록 진미를 느끼게 된다.

김 시인은 “영광이 고향이다 보니 남도음식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러나 시집에는 남도를 넘어 우리나라 보편적인 음식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니 ‘된장찌개’, ‘삼겹살’, ‘돼지국밥’, ‘감자탕’, ‘잡채’, ‘수제비’ 등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전국적인 음식이다.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있지만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보편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가 여름에 주로 먹는 ‘냉면’이다. “살얼음 낀 육수에 소름을 얹어 눈물 같은 식초 몇 방울 뿌리고”(‘냉면’) 긴 면발에 시원한 육수를 먹고나면 삼복더위는 저만치 달아나버린다.

상추쌈 또한 여름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다. “찬밥 한 덩이만 있으면 날따라 상추 한 잎”에 “푹고추를 씹장 등뿔 찍어 한 입 가득” 먹으면 진수성찬이 따로없다.

각각의 시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 이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시극형태로 이루어진 ‘간장게장’은 대표적인 시다. 오늘날 간장게장이 왜 ‘밥도둑’으로 불리게 됐는지

를 극형식으로 보여준다. “밥도둑이라는 그대가 어떻게 여기 왔고/ 서해의 물살을 딛고 옆걸음 치다가/ 어부의 그늘에 붙잡혀 왔나이다(중략)/ 무엇이 입맛을 당기게 했고/ 마늘 생강 양파 사과를 끓인 간장이/ 뱃속으로 스며들 때 흘린/ 제 쓰러린 눈물 맛인 듯하옵니/ 이제부터 그대를 밥도둑(都督)이라 칭하노라”

신라시대 지방장관을 ‘도독’이라 칭했는데, 시인은 간장게장을 빗대 ‘밥도둑’이라고 해학적으로 풀어낸다.

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명을 붙인 ‘영광굴비’는 유년의 기억이 깃든 삽화다. “법성포구 하늬바람에 씻은/ 굴비살 한 점, / 가시 발라 손가락 위에 올려주던/ 어머니가 울컥, 그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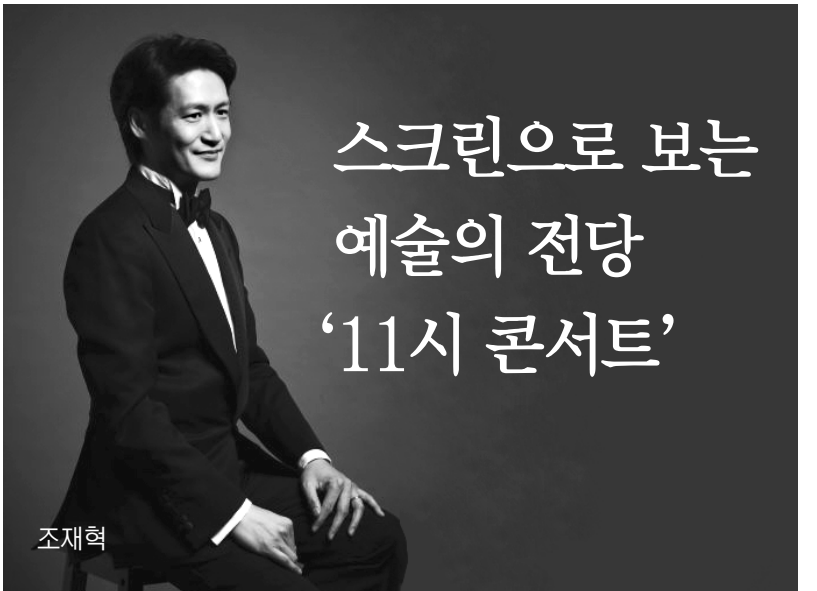
저자는 “고향이 낯고 길러주었는데 지금까지 고향에 해준 게 너무 없다”며 “굴비는 ‘영광’이라는 지명이 붙지 않으면 제 맛이 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보리밥’에는 어린 시절 소꿉꿉했던 때의 일화가 담겨 있다. 반장이었던 저자가 선생님 도시락을 싸가게 됐는데, 차마 보리밥을 내놓지 못하고 되가져 왔다는 내용이다. “보릿고개를 넘어야했던 소꿉날/ 보리밥 도시락 선생님께 드리지 못하고/ 청보리밭 사이로 돌아오던 길”에 시인은 “보리밭에 숨어 울었다”고 밝힌다.

서문을 쓴 유안진 시인(예술원회원)은 “시가 언어의 예술이듯이 음식도 음식예술이고 둘 다 서로 다른 보편적인 문화 예술적 창조작품”이라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시문학’에 시와 평론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제8회 푸른 시학상과 제3회 스토리문학상을 수상했다. 작품집으로 ‘응’, ‘주부편리수첩’ 등이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0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서울 예술의 전당의 인기 프로그램 ‘11시 콘서트’는 올해부터는 광주에서도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다. 예술의 전당이 진행하는 ‘작은 스크린’ 기획을 통해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11시 콘서트’ 8월 공연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열린다.

‘Summer Fest II’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출연하며 플루티스트 손유빈

과 첼리스트 김덕용이 협연한다. 지휘는 캐나다 출신 첼리스트이자 지휘자 엘 리가 맡는다. 레퍼토리는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 비제의 곡을 보네가 편곡한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르멘 환상곡’ 등이다. 인터미션 시간 20분을 포함해 약 2시간 정도 공연이 이어지며 재단측이 준비한 커피와 빵을 즐길 수 있다. 사전 전화예약 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교보문고 ‘언어의 온도’ 전자책 한 달간 무료

교보문고와 휴가철 상반기 베스트셀러인 이기주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 전자책을 8월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교보문고 이북(eBook) 무료 코너에서 본문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내려받으면 2주간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의 온도’의 좋은 문장을 뷰어 내 ‘공유하기’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달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전자책 31일(31일)에 초대한다.

교보문고는 또한 ‘스파이더맨’의 모

든 것’ 등 마블 코믹스의 전자책 만화 30종을 할인 가격에 대어준다. 도서마다 제공되는 50% 추가 할인 쿠폰을 받으면 500원~1250원의 최저가로 이용 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서 구입비·공연비 공제율 15%→30%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현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고자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이다.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것 역시 서민들의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됐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

급여 ▲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하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 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원 한도)에 비해 혜택이 줄었지만, 출판계

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연계 역시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동시에 이번 조치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연계 관계자는 “지금도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바우처가 있지만, 공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는 그리 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책이나 영화 쪽에 문화바우처 사용이 쏠렸다”면서 이번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장르 쪽으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립미술관, 8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강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진행하는 2017 현대미술강좌 다섯 번째 강좌가 오는 8일 오후 3시 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초대 강사는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 교수다. 박 교수는 한국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수용과 전개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명암’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호미술관 큐레이터, 제2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2010 아시

아프 총감독 등을 역임한 박 교수는 KBS1 ‘명작 스캔들’, ‘TV 미술관’ 등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저서로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 ‘식물성의 사유’, ‘예술가의 작업실’, ‘수집 미학’ 등이 있다. 무료 참여. 문의 062-613-7153. /김미은기자 mekim@

